

# 문화재 ‘원형’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적용상의 제문제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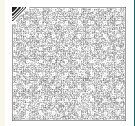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으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문화재가 지닌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형’이라는 용어는 근대기를 전후하여 국내에 유입되어 현재까지 그 용어를 관습적으로 늘 사용해 왔으며, 1999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기본원칙으로 ‘원형유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관리 당국이나 전문가, 그리고 수리담당자는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가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원형’은 피상적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 또는 ‘해당 문화재가 완성된 순간의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일부 학자들은 국제적 원칙을 반영하여 ‘모든 시대적 층위를 간직한 상태’로 보기도 한다.

현재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은 원형을 문화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구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원에 대한 연구나 개념의 유입과정, 그리고 개념정의의 틀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은 국내의 문화재 보존원칙과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며, 판단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 보존원칙이다. 그러므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판단과 선택에 필요한 철학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형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면 철학적 토대를 세우려는 실체가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원형유지’의 원칙은 내용은 없고 표면만 존재하는 원칙이 된다.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공적인 행위이므로, 가치에 기반한 지정-보존관리-활용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기본원칙인 ‘원형유지’의 원칙을 실천하려면 원형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가치와 원형간의 관계 규명, 그리고 원



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정의와 지침, 그리고 원칙은 공적인 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개방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나와야 한다.

원형과 가치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제시하고, 행위의 원칙으로 '원형유지'를 명시함으로써 대상과 행위를 위한 철학적 사유구조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개별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가치'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유·무형적 요소인 '원형'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201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시작한 '원형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1단계에서는 원형의 어원과 개념의 발전과정을 추적하고, 원형개념이 도입된 이래, 미흡하고 불완전한 개념을 문화재 지정과 보존·관리를 위한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문화재의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단계에서는 문화재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원형개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형개념을 학문적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원형유지의 원칙에 대한 철학적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여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보존관리의 원칙으로 바로세우는 데에 있다.

이번 호에 실는 5편의 기획 논고는 1단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개념의 유입과정과 의미의 발전과정, 그리고 문화재의 대 유형별로 개념의 적용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법적 용어로서의 요건과 현 문제점을 다루고, 이와 함께 앞으로 원형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들 논고는 ①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 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이수정) ②건축문화재의 원형(原形) 개념과 보존의 관계-한국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역사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강현) ③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이재필) ④자연문화재에 있어 원형개념 적용의 문제점(이원호) ⑤문화재 소관 법령에서 '원형유지' 원칙에 대한 법률적 검토(황권순) 등으로 나누어 본 연구에 참여한 문화재청의 내부전문가들이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5편의 논고는 기존의 문화재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도는 원형개념을 분야별로 정립하여, 원형유지의 원칙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형개념의 도입과 발전과정, 그리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기획논고에 정리한 내용들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